

“호랑이군단 ‘2026 우승’ 가즈아~ 끝까지 응원”

KBO 포스트시즌 KIA-LG 준PO 1·2차전 열기 후끈
경기 시작 전부터 챔피언스필드 입구·기념품숍 복직
현장 발권 제한·모바일 티켓 의무화에 팬들 불만도

“KIA가 승리해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18일 오전 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흐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2026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2차전을 앞둔 경기장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야구 팬들로 북적였다.

오후 2시 경기 시작까지 4시간이나 남았지만 전날 KIA가 1차전을 승리하면서 경기장 곳곳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감돌았다. 외야석 입구와 KIA 공식 기념품 판매점인 티스토어, 카페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외야석 입구 주변에는 텐트와 캠핑용 의자, 돗자리를 펼쳐 놓고 간식과 음료를 먹으며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이 눈에 띄었다. 팬들은 장시간 대기에도 응원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환한 표정으로 경기 시작을 기다렸다.

티스토어에는 유니폼과 응원봉 등 구단 상품을 구매하려는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다만 포스트시즌 상품의 1인당 품목별 구매 수량이 2개로 제한되면서 여러 상품을 구매하려면 일부 팬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물건을 내려놓기도 했다.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경기장 인근 카페로 향했다. 음료와 빵을 주문한 뒤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려는 모습이었다. 카페 직원들도 몰려드는 손님을 맞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오가 되자 경기장 출입구가 열렸다. 팬들은 소지품 검사를 마친 뒤 장내로 들어가 기념사진을 찍고 예약된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경기장 밖에서도 KIA와 LG 팬들이 응원을 부르며 각자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기원했다.

뜨거운 응원 열기와 달리 입장권 현장 발권과 모바일 티켓 운영 방식을 둘러싼 불만도 나왔다.

온라인 예매에 실패한 일부 팬들은 현장 판매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 2매표소 앞에서 3시간가량 기다렸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지정된 대상자만 구매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팬들은 종이 티켓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정규시즌에 운영하던 무인발매기에는 포스트시즌 기간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모바일 티켓으로 입장해야 한다는 설명에 예매확인서를 출력해



지난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6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1차전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앞두고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온 일부 팬들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도 했다.

정규시즌에는 티켓링크를 통해 입장권을 판매했지만, 포스트시즌에는 NOL이 단독 판매처로 운영되면서 모바일 티켓 이용이 사실상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야구팬 김모씨(40)는 “야구장 종이 티켓을 모으는 것이 취미인데 모바일 QR 티켓은 종이로 출력할 수 없다는 말에 아쉬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과 현장 수령 대상자에게만 종이 티켓 발권을 허용하는 등 일방적인 운영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1차전에서도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

KIA 이종범 선수의 팬인 신모씨(46·서울)는 “가족이 모두 야구팬인데 온종일 4석을 다 예매해 기쁘다”며 “서울에서 오전 4시에 승용차로 출발했는데 경기를 직관할 생각을 하니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12일 정규시즌 LG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치며 3위를 확정된 것처럼 이번 시리즈에서도 홈런을 터뜨려 승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며 “준플레이오프에서 빠르게 3승을 거두고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LG 트윈스 박해민 선수의 팬인 김영탁씨(38·경기 김포)는 “광주 야구장은 두 번째 방문이다. 최근 KIA와의 상대 전적이 좋지 않지만 LG가 3대 2로 이기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나주 부부 살해’ 혐의 박용수, 구속 송치범 범행 인정…버린 의류서 피해자 혈흔·DNA 검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에서 60대 부부 살해 사건에 연루된 박용수(53)가 구속 상태로 공소장에 넘겨졌다.

나주경찰은 지난 16일 강도살인 혐의로 박용수를 구속 송치했다.

박용수는 이날 오전 8시30분 광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갑을 찬 채 나왔다. 회색 복장을 입은 박씨는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시선을 피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여부, 도박자금 사용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박용수는 “정말 죄송하다. 체무관계 때문이었다. 야간에 너무 시끄럽게 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박용수는 5일 오후 9시28분께 나주시 왕곡면의 60대 부부 주거지를 찾아가 흉

기로 위협한 뒤 결박하고, 아내 A씨의 얼굴을 막아 질식사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B씨 계좌에서 현금 11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수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7일 오후 2시37분께 무안군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용수는 피해자 A씨와 광주의 한 성인게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용수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수는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했다. 범행 후 갈아입을 옷도 미리 준비했으며, 해당 의류를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기된 의류에서 피해자들의 혈흔과 DNA를 다수 검출했다. 송대영 기자

광주 챔피언스필드, 관중 이동통로 위험 방지

스피커 추락 우려 등 안전점검 지적 62건 중 10건 미조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관람객 이동 통로와 어린이 이용시설 입구 인근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의 고정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지만, 추락 방지 등 핵심 안전 조치는 시즌 종료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프로야구장 합동 점검 조치현황’에 따르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안전점검 지적사항 62건 가운데 52건만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율은 83.9%로, 재건축·중축 등으로 정규경기가 열리지 않은 4곳을 제외한 실제 운영 구장 8곳의 평균 조치율 93%에 크게 못미쳤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관중 머리 위에 설치된 스피커의 추락 위험이다. 합동점검에서는 벽면·천장 부착형 스피커의 고정 볼트가 누락되거나 시공 상태가 불량한 점이 지적됐다. 스피커가 추락할 경우 관람객이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추락 방지망 설치 등 이중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스피커 아래로 관람객 이동 통로가 이어지고 키즈존 입구와도 인접해 있어 사고 발생 시 어린이를 비롯한 다수 관람객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관련 안전 조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구단과 지자체는 고소작업이 필요하고 보수 대상이 많다는 이유로 작

업 시기를 포스트시즌 종료 이후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중이 밀집하는 야구장의 특성상 안전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지붕층 철제 기둥 부식, 관중석 정작부 노후화, 고정 볼트 일부 누락 등이 지적됐다. 관람석 철제 안전난간의 높이가 부족하고 카메라 단상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문제도 확인됐다.

전국 야구장의 안전점검 조치도 미흡한 수준이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12개 야구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746건으로, 이 가운데 557건(74.7%)만 조치가 완료됐다.

유상범 의원은 “관중 안전만큼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아야 했다”며 “치명적 결함을 예산 부족이나 시즌 종료 이후라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경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42	달빛	17:53
해질	14:06	달빛	19:09



광주		15~23
목포		16~21
여수		17~23
순천		16~24
구례		15~24
광주		16~22
진남		17~23
진남		17~23
진남		16~21

목포	밀물(고)	01:06 / 06:57
여수	밀물(저)	12:09 / 20:09
	밀물(고)	01:41 / 07:50
	밀물(저)	16:05 / 23:15

보호관찰 청소년 새출발 응원

마네편 ○···범죄를 저지러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감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이 장학금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18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26년도 제2회 중·고졸 감정고시에 합격한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

이번 장학금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학업을 이어가며 감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의 노력을 격려·위로하고, 이들이 건전한 고 더 나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재)보문복지재단 후원으로 마련.

정주리 보문복지재단 이사는 “어려운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감정고시에 합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밝은 미래가 여러분의 앞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격려.

임경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산구 생활권 주거돌봄, 국가시범지역 지정을”

정책 포럼서 “광산형 표준 모델로 전국적 확대” 제안
박병규 구청장 “살던집 프로젝트, 국가 제도화 기대”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 구를 ‘생활권 주거 돌봄 국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안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최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터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 돌봄 정책의 대전환’ 포럼(공개토론회)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살던집 프로젝트’를 전국 어디서나 누리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생활 공간에 회복 지원 주택인 ‘중간집’, 돌봄 전달 인

력이 상주하는 ‘케어홈센터’를 구축, 주거와 의료,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살던집 프로젝트’의 제도화가 포럼의 핵심 화두였다.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에서 집의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집’을 돌봄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생활하는 물리적 공간 개념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호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터 상임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광산

구는 살던 곳에서 계속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며 “그 길을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 광산구를 생활권 주거 돌봄국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합 토론에서 많은 전문가는 ‘살던집 프로젝트’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주거돌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장응동 (사)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남다른 인간 존중에 대한 철학과 관심으로 ‘살던집 프로젝트’ 같은 혁신적인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한 광산구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며 “분절된 돌봄서비스의 통합 관리라는 제도화 과제를 풀기 위해 중앙이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맡고, 지자체가 분절된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최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터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 돌봄 정책의 대전환’ 포럼(공개토론회)을 개최했다.

강순주 건국대 명예교수는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는 초고령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간집” 공급 기반 확충, 병원 퇴원 단계부터 중간집 입주, 재활 후 자택 복귀를 연계하는 협력 체계 등을 제안했다.

방성민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는 공공임대 단지가 어떻게 지역사회 돌봄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줬다”며 공공임대 공개 및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제도적 특례 마련 등을 제도와 과제로 꼽았다.

토론에 앞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살던집 프로젝트’를 통해 ‘환자’에서 다시 ‘주민’으로 일상을 되찾은 사례, ‘중간집’ 입주민의 월평균 임대비가 80% 가까이 줄어든 성과 등을 소개했다.

박 정장은 “‘돌봄이 필요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왜 살던 집과 이웃을 떠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가장 먼저 붙잡는 단어는 ‘존엄’이었고, 이것이 ‘살던집 프로젝트’로 이어졌다”며 “‘살던집’의 핵심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닌 지역의 사람과 공간,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가 지난 13일 ‘중간집-선운’을 열고 병원,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원래 살아온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살던집 프로젝트’를 선운권역으로 확대했다. ‘중간집-선운’ 개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살던집 프로젝트’ 전국 확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